

개발 및 ECOSOC 개혁에 관한 총회 비공식 회의(공유)

I. 핵심 요지

- 유엔 총회는 12.1(목)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고 9월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발 및 ECOSOC 개혁 이행에 대한 유엔관련 기관 및 OECD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함.
- 회의에서는 금번 정상회의 합의 이행을 위한 전회 원국 및 관련기구들의 공동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2010년 선진국의 ODA가 GNI의 0.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개도국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개도국들도 이에 부응하여 원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빈곤경감을 위한 구체적 실적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함.

II. 주요 발제 내용

1. 의장단

-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Diarra 말리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주 합의에 따라 개발문제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 대표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하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회원국간 결의안 협상(개발 및 ECOSOC 개혁에 관한 2개의 결의안) 초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Eliasson 총회 의장은 정상회의 합의 사항 중 Peace Building Commission은 금년 중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고, Human Rights Council 창설문제에 대한 토의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테러 및 유엔 행정 개혁문제가 본격 협의되는 시점에 개발 및 ECOSOC 개혁문제 논의가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고 함.
- 현재 분야별로 각기 다른 협상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되고 있으나, 회원국 모두가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긴급성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빈곤 경감문제는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함.

2. Ocampo 사무차장

- 금번 총회에서는 정상합의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ECOSOC이 중심이 되어 개발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위급 정책대화, 격년제 개발협력포럼, 연례각료회의 개최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긴급인도주의 상황발생시의 대처를 위한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현재 DESA는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규범적이고 분석적 작업이 포함된 문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global partnership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3. Jenks UNDP 국장

- 금번 정상회의는 빈곤경감과 사회개발관련 각종 정상회의 등 MDG 달성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UNDP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IMF/WB와 협조하여 개도국들의 총체적인 사회경제개발계획인 빈곤경감전략(PRSP/MDG) 수립을 지원하고 있고, 주제별로는 무역능력배양, 양성평등, 인권 및 선정, 환경 및 지속가능 개발에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모든 개발협력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OECD/DAC와 공동으로 원조예산의 평가 및 회계 감사 체제 도입 검토, 원조의 효율성에 관한 파리 선언 이행 등에 대한 개혁과제가 진전되기를 희망하며, 현재 과제(pole)별로 되어 있는 개발 의제를 큰 주제(pillar)별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개발정책수립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시민단체, NGO들이 응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4. Bauche 세계은행 부총재

- WB는 정책의 초점을 MDG 달성에 맞추어 재편하였으며, 50개의 개도국의 PRSP/MDG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단기 목표와 성장과 환경 등 중장기 목표가 균형있게 추진됨.
 - 국제사회의 공약인 aid for trade 이행을 위해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DDA 협상이 조속 타결되기를 희망함.
- 개도국 지원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는 지금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며, 2009년까지 선진국의 ODA는 현재의 연 800억불에서 1,300억불로 증대예정인 바, 고채무최빈국(HIPC)에 대한 채무탕감이 이루어지고 있음. 원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함.
- MDG 달성에 추가하여 시급히 다루어야 할 세계적인 과제는 기후변화, 조류독감, 자연재해라고 봄.

5. Puri UNCTAD 국장

- MDG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금번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새로운 체제의 모색보다는 현조직과 성과를 최대한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업무 중복과 낭비를 피해나가야 함.

- ECOSOC의 통합 및 조정기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개혁과정에서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 funds and programs의 역할과 기능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를 희망함.
- 개도국의 통계수집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정책수립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6. Manning OECD/DAC 의장

- DAC는 매년 12월 ODA통계를 취합하는데 금년에는 13%가 증액되었으며, 선진국들의 공약이 모두 이행된다면 2010년에는 선진국 GNI 평균의 0.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는 ODA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원조 효율성 증진에 관한 파리선언 후속회의가 2006. 2~3월 개최될 예정이며 기대감이 크며, 가나 정부가 자발적으로 원조의 투명성과 회계 감사에 관한 pilot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한 바, 이는 다른 개도국들에게 귀감이 될 것임.
- 기존 선진국들에 추가하여 한국, 터키, 신규 EU 회원국들도 ODA를 공여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며, 중국도 9월 정상회의에서 100억 규모의 유상 원조공여계획을 발표하는 등 남남협력도 진전되고 있음.

7. Munzberg IMF 뉴욕 특별대표

- IMF는 MDG 이행 과정에서 개도국의 PRSP/MDG 정책의 적정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고, 국별, 지역, 세계적 차원의 감시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현재 가장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분야는 고유가로 인한 국제적 불균형 및 아프리카개발, 각국 경제정책의 건전성 평가, 위기 예방 및 관리, 금융분야 안정화 등임.
- 외채탕감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 국가들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으며, 동 탕감이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 정상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사무국과 관련기관간의 기존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ECOSOC을 중심으로 몬트레이 콘센서스 이행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봄. ECOSOC과 브레튼체제기구와의 연례대화도 계속되기를 희망함.

Ⅲ. 토론

- 참석자들은 9월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도국에 대한 ODA가 대폭 증액될 예정이나, 선진국들은 이러한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부패를 방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반작용(선진국 국회에서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나타

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회원국들은 사무국에 대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이행을 위해 유엔 예산이 대폭 증액될 가능성(73백만불 추정)을 문의하였으나, DESA측에서는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만 답변함.
- 자메이카(G77) 대사가 governance 와 인권문제가 너무 강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데 대선진국들은 이는 많은 개도국들이 공감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문제로서 우려할 사항은 아니며 원조의 효율적 사용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칠레대사는 독재자 피노체 축출이후 자국 빈곤이 전국민의 41%에서 18%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만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균형(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 14배)은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유엔 및 IMF/WB가 계층간 불균형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요청함.

□ 르완다대사(아프리카대표)는 아프리카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가 지원을 호소함.

□ 공동의장(말리대사)은 종결 발언을 통해, 유엔과 모든 국제기구는 MDG 및 정상결과문서이행을 중심과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확인하였고, 정상합의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중복을 회피하고, PRSP/MDG 계획 수립에 대한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관련정보 공유 증대, ECOSOC 개혁 조속 추진, 원조의 효율성 증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회의를 종결함.

[자료: 주국제연합 대표부]